

# 2019년 제40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일 시        2019년 4월 29일(월) 14:00

장 소        청계별관 4층 회의실

# 2019년 제40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진행상황

(마이크 미사용 및 녹취 불능은...표시함.)

개 회 2019년 4월 29일(월) 14:00

장 소 청계별관 4층 회의실

간 사

두 분이 오고 계신데 뒤에 홍보사항 먼저 할까요?

부위원장

예, 먼저 하시죠.

간 사

그럼 위원회 개최 정식으로 하기 전에,

부위원장

개최를, 성원이 아직 안 됐잖아요.

간 사

예, 보고안건,

부위원장

잠깐만요.

## 1. 보고안건

### 제5호 보고안건

마곡광장 조례 제정계획 보고

### 제5호 보고안건 설명

간 사

OOO 위원님하고 OOO 위원님 오고 계신데,

부위원장

OOO 위원님은 늦으시는 것 같고요.

간 사

보고사항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제일 끝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보시면, 회의자료를 보시면 46페이지입니다.

마곡에 광장이 마곡나루역, 공항철도 마곡나루역하고 9호선 마곡나루역 사이에 중앙마곡광장이 있거든요.

광장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가 없던 조례가 새로 생기는 거고요.

46페이지 보시면 위치는 그렇고요.

관리운영, 광장은 빌려줘야 되니까 그런 내용을 정하는 거고, 5월 달에 조례규칙 심의를 개최하고 7월 중에 입법예고해서 10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붙임자료가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마곡광장은 5분당 100원이고요.

월 정기권은 7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 제6호 보고안건

### 제1차 「M-밸리 포럼」 개최 계획

## 제6호 보고안건 설명

간 사

그다음에 55페이지 보시면, 5월30일 날 마곡에 M-밸리 포럼이라고 작년년부터 계속 하게 되는데요.

목요일 날 개최하게 됐고, 얼마 전에 M-밸리 운영위원님께서 모여가지고 포럼 주제를 두 가지로 정해 주셨어요.

스마트시티 시범단 조성하는 것하고, 55페이지입니다.

마곡R&D 공유환경 및 M+센터 운영 두 가지 주제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OOO 위원

보고안건 먼저 하시죠.

보고안건도 먼저 하세요.

간 사

더 할까요?

부위원장

시간절약상.

제2호 보고안건

제3차/제4차 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제2호 보고안건 설명

간 사

OOO 위원님이 조금 늦으시니까 보고안건 중에 쟁점이 덜 되는 것,

OOO 위원

사전에 보고는 드렸거든요.

부위원장

예, 심의의결 하는 거 아닌 것,

간 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안건을 했는데요.

부위원장

페이지부터 알려주세요.

간 사

페이지가 46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안건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안건 설명했고, 두 번째 안건 38  
페이지는 소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형 공장 신설 신청에 따라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결과를 보  
고 드리는 겁니다.

저번 주 정책심의위원회 하는 중에 두 차례 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12월18일하고 그다음에 3월11일, 도시형 공장 신설 승인 심의 건입니  
다.

OOO가 작년 12월18일 날 열렸고요.

그다음 올해 3월11일 날은 도시형 공장 신설 승인이 OOO, OOO,

OOO, 그리고 준공 전 입주기업 시설계획 변경여부 심의가 OOO해가지고 토털 공장은 4개, 그리고 시설계획 변경여부는 하나 해가지고, 전부다 소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열렸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간사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40차 정책심의위원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열네 분 중 여덟 분이 참석하였으므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시지 못한 위원장이신 제2부시장님을 대신해서 최만범 부위원장님께서 개회선언이 있으시겠습니다.

#### 부위원장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40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랜만에 뵙고 금년 들어서 봄이 완연하게 된 계절입니다.

여러분 몸 건강히 주의하시고, 오늘 회의가 잘 진행이 돼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산업융합협회 회장으로 있는 최만범입니다.

올해 정책심의위원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OOO 위원님께서 한 15분 정도 늦으신다고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회의 도중에 참석하시면 다시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를 그동안 운영을 하시는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의 김선순 본부장님께서 1월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서울시 경제정책실장님을 대신해서, 같은 경제정책실 소속의 이희승 거점성장추진단장님을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두 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원회에 계속 참석해 주셔서 좋은 의견 주셨던 문홍선

강서구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현재 해외 연수 중이셔서, 부득이하게 유승득 강서구 미래경제국장님이 대신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한 위원님의 소개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새로 위촉된 분들 간단하게 인사말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순 본부장님께서 인사말씀.

OOO 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1월1일자인데 너무 인사가 늦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마곡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정책심의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동 박수! )

부위원장

다음은 양재R&D지구, 홍릉에 있는 바이오의료클러스터, G밸리 등 마곡산단과 유사한 업무를 총괄하시는 이회승 거점성장추진단장님 인사말씀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OOO 위원

반갑습니다.

이회승입니다.

저도 1월1일자로 받았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교육 잘 받고 왔더니 어려운 일 맡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업무이기는 한데, 오늘은 제가 잘 배운다는 마음으로 한번 지켜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혹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미력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동 박수! )

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회는 제18차 일반분양 신청기업 평가가 있는 만큼 신속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하고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

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심의안건 다섯 건하고, 보고안건 여섯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심의안건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로 제18차 산업시설용지 일반분양 협의대상자를 심의하는 건이 한 건이고, 두 번째는 시정명령 기한 내에 미착공기업 계약을 해지하는 여부에 관한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준공 후 연구시설면적 공실활용방안에 대한 개선안이 올라와 있고요.

네 번째는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도 역시 다섯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보고안건으로는 민간 R&D센터 지식산업센터 공모계획안 외 다섯 건, 총 여섯 건의 안건이 보고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의안건

### 제1호 심의안건

#### 제18차 산업시설용지 일반분양 협의대상자 심의

#### 부위원장

먼저 제18차 산업시설용지 일반분양 협의대상자에 관한 심의안건입니다.

간사께서는 심의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1호 심의안건 설명

#### 간 사

회의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대상 부지 한 개 필지 D21-2 부분, 면적은 2,982㎡에 대한 분양접수 결과 다섯 개 기업들이 신청하였습니다.

기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2페이지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사업평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부분은 기업평가 부분이 400점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들이 오늘 평가하실 부분 사업계획평가입니다.

600점 만점, 총 1,00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기업평가는 관리단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미 평가가 다 끝나서, 그 점수가 5페이지에 정량평가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위원님께서서는 사업계획평가 600점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평가를 하시고 평가충족기준을 말씀드리면, 2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1,000점 만점에 600점 이상인 경우에만 협의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자격을 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부다 600점이 되지 않으면, 선정대상자가 아예 발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상입니다.

OOO 위원

몇 개 기업을 선정을 해야,

간 사

한 개요.

OOO 위원

한 개 하는 겁니까?

간 사

한 개를 하고요.

한 개 기업을 합니다.

부위원장

600점이 넘는 것 중에서 최고 득점자를 선정을 하는 거죠?

간 사

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심사대상은, 우선 먼저 OOO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새롭게 오셨는데 인사말씀 하시죠.



다른 분들 다 인사를 하셨는데요.

OOO 위원

OO에서 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OO대학교 OOO 부 OOO 교수입니다.

제가 또 마곡을 잘, OO에 살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 있고 지나가면서도 이 회의하면서부터는 더욱더 주의 깊게 보게 되더라고요.

잘 구성이 돼가지고 조성이 돼서 잘 운영되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일동 박수! )

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다섯 개 기업에 대한 안전심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진들 밖에 대기하고 있나요?

간 사

예.

부위원장

그럼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들어와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시고, 나누어드린 배점표에다가 여러분 질의응답을 하신 다음에 배점을 채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선 간략히 설명 드리기 전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하고요.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하시고, 그다음에 5분 정도 내에, 시간이 없어요.

5분 정도 내에 PT를 하시고,

### 1번 ~ 5번 기업 발표 및 질의응답

(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은 대부분 기업 내부정보이므로

외부 공개용 속기록에 미기재함)

기업발표가,

OOO 위원

다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채점표를 채점을 지금 하셔가지고 실무진한테 넘겨주시면,

OOO 위원

의의가 없이 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의견을 토론 없이 그냥 개인, 개별적으로 판단하신 거에 대해서 채점표에다가,

OOO 위원

그러면, 저 1분만 주실래요?

부위원장

예.

OOO 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 처음이고요.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저를 아마 위원으로 했던 거는 김선순 본부장님 지역본부의 역할도 있지만, 서울시는 여기를 포함한 일대 클러스터를 중점육성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홍릉의 바이오하고 양재의 AI, 구로 G밸리 이런 건데, 핵심은 AI하고 바이오를 중점육성하는데, 제가 그 업무 맡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욕심은 보면 공간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쪽 공간은 저희가 셋업을 해서 임차 형태로 빌려주거나 육성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마곡은 좋은 땅을 갖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는 스타트업 형태로 가고 있고, 여기는 기업 형태로 들어오는데, 한 가지 그동안 아쉬웠던 거는 뭐였냐면 AI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아니면 IoT가 됐든 4차 산업혁명, 어떠한 비즈니스든 간에 스타트업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의 종사자들이 더 커가는 과정에서 백업해 주는 게 정부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서울시가 갖고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서, 큰 기업이나 민간기관에서

어떤 그 그런 비즈니스 할 때 이왕이면 잘 조화가 됐으면 좋겠고, 그 민간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R&D센터가 서울이 육성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같이 붙여주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보니까 몇 가지 좋은 업체 제안서가 있길래 욕심은 다 나기는 하는데, 그런 게 마곡산단의 어떤 기업의 R&D센터 유치하는 전략과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구요.

저는 그렇습니다.

OOO 위원

잘 평가에 반영하면 된다.

위원님이 한 거예요.

부위원장

그거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OOO 위원

디스커션하는 것, 저는 이런 식의 평가는 처음 봐서요.

OOO 위원

이게 사실 마곡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여러 생각들이 많아서, 그냥 우리가 논의해가지고 어느 한 기업만 하는 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저도 처음인데요.

부위원장

위원장은 안 하는 거죠?

OOO 위원

예, 위원장님은 안 하시는 거예요.

간 사

최고점하고 최저점은 빼는 거고요.

OOO 위원

어차피 위원님들 평가하시면 최고, 최저 빼고 나머지 평균,

부위원장

예, 중간에 있는 것.

간 사

저런 용지는 굉장히 뜨거운 편이고요.

000 위원

그리고 기본 600점이, 총점 1,000점 만점에서 600점이 안 되면 아예 탈락이고요.

부위원장

아예 논외로, 예.

000 위원

저기, 화장실 갔다 오면 안 되나요?

000 위원

갔다 와도 됩니다.

부위원장

갔다 오셔도 됩니다.

000 위원

그런데 보통 할 일 하고 가는 게 편하죠.

부위원장

기업평가를 처음에 여기 부서에서 했잖습니까?

간 사

...

부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000 위원

관리단, 저희 마곡산업관리단에서,

부위원장

관리단에서 했나요?

서울시관계자A

예.

부위원장

그거하고 우리 듣는 것하고 조금 차이들이 나는 게 있어서, 그게 사실 영향을 주면 안 되는데, 그게 앞부분에 우리가 받잖아요.

그 기준표를 다 보고 순위가 다 나왔단 말이죠, 점수순위가요.

점수순위가 굉장히 폭이 000점 이상이, 0위하고 0위하고 차이가

000점 이상 차이가 나요.

그 폭이 상당히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이 우리 이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데 영향을 혹시 줄까봐 그게 내심 걱정이 들기는 합니다.

선입감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평가, 뭘 보고 평가를 하셨는지, 그게요?

서울시관계자A

일단 정량평가는,

부위원장

순수한 서류만 보고 하시는 건가요?

서울시관계자A

예, 주어진 증빙자료를,

부위원장

면담 같은 거는 안 했습니까?

서울시관계자A

면담은 전혀 안 했습니다.

간 사

리포팅하는 전문가들 또 두세 분 계세요.

부위원장

전문가들이 같이,

간 사

참고해서, 발표한 거는 사업계획에 안 담으면 허공에 있는 것들, 저런 평가하는 거는 전문가가 입증서류를 보면서,

부위원장

그때도 서류를, 다 제출했던 서류가 오늘 제출한 서류하고,

간 사

이 자료를 전부다 자세히 봐가지고, 조그마한 리포트 따로 있잖아요. 이거를 전문가들이,

000 위원

저희가 합산하면 검사는 다시 그쪽에서 하죠?

서울시관계자A

저희가 다 합니다.

000 위원

합산 안 해도 되는 거죠?

서울시관계자A

예.

부위원장

‘그거를 보면서 혹시 앞에 기업 평가할 때 부서에서,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영향을 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채점표 작성 중. )

000 위원

다른 데다가 탈락한 기업을 위해서 또 제공할 부지는 없어요?

간 사

600점이 넘으면 일단 저희들이 나중에 처분용지가 나오면,

000 위원

거기에다가 또,

간 사

소개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부지 현재 상태는 없기는 하지만.

000 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하고 ○○ 지난번에 했던,

간 사

저번에 했던 데예요.

재수생, 두 개의 기업체는 재수.

부위원장

예, 두 개는 재수.

그때는 단독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 컨소로 아니었죠?

간 사

○○하고 ○○같이 왔습니다.

000 위원

재원조달계획을 너무 세분화시켜서 이것을 어떻게 점수를 주나요?

저는 못 하겠는데요.

000 위원

여기 우리가 아까 평가했던 것 있죠.

000 위원

그런데 이거 너무 세분화해가지고요.

000 위원

그거 보고 해요.

000 위원

웬만하면 PT에다가 정답을 가르쳐 주고 그래야죠.

000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봐도,

부위원장

굉장히 어렵게, 평가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000 위원

봐도 이거를,

부위원장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000 위원

그 틈에 000님, 강서에 50층짜리 건물 하나 지읍시다.

50층짜리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전부다 층별로,

간 사

고도제한을 위원님이 정해 주셔야죠.

고도제한 해제를 해주셔야죠.

김포공항을 조금 옮기든지 폐시하시든지요.

000 위원

알아서 해야지, 자꾸 위원님한테,

000 위원

아주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긋지긋합니다.

시에서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싸우겠는데, 시에서 할 수가 없으시니까  
요.

부위원장

하나만 고르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 경쟁 치고는요.

000 위원

세상에 이렇게 시험문제는 처음 보네요.  
못 고르겠는데요.

000 위원

땅 몇 개 더 없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000 위원

걸러가지고 줘야 되겠어, 세 군데 업체로요.

부위원장

다섯 개가 상당히 많아요.

000 위원

다섯 개인데 두세 군데는 해줘야죠.

000 위원

너무 구체적이어가지고요.

부위원장

이거를 다섯 개를 다 듣고 마지막에 평가를 하는 것보다 하나씩 평가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메모를 해놓지 않으면요.

000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연필로 미리 해놓고 나중에 다 듣고 나서 돌아가서 그  
거를 했어요.

부위원장

그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다 종합을 하려면 기억이 안 나요.

000 위원

예, 맞아요.

000 위원

헛갈려요.

000 위원

그렇고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의문이 있는 거는 밑에다가 메모도 해놓고 퀘스천마크도 해놓고요.

부위원장

굉장히 어렵네요.

OOO 위원

용도별 건축기본계획, 시설계획 이거를 어떻게 차이가 나냐고요.  
R&D 운영계획이랄까 이거는 알겠는데 건물을 어떻게 용도를,

OOO 위원

이거를, 그래서 그것도, 그런 거는 여기를 봐야 돼, 큰 거요.  
큰 거 보면 고층짜리 ‘OO층 짓는다.’ 이런 게 있거든요.

OOO 위원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공기청정기 보급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물들 보면 다 공조시스템으로 해서, 위에서 공기가 내려오잖습니까.  
그럼 이 덕트를 1년에 한 번씩 청소하겠느냐 이거죠.

부위원장

안 하죠.

OOO 위원

거의 안 하잖아요.

부위원장

안 하죠.

OOO 위원

가장자리 토출되는 부분 새까맣거든요.  
그거를 다 그냥 마시고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안 합니다.

OOO 위원

안 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그거거든요.  
공기청정기를 학교에 공급, 초·중·고, 중·고등학교에 공급해도 관리를 제대로 하겠느냐.

필터 값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부위원장

그거를 저쪽에서, 공기청정기에서 그거를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OOO 위원

이게 다 우선 돈이 나와야지만 할 텐데요.

( 채점표 작성 중. )

부위원장

오늘 여기에서 결과를 바로 알 수 있습니까?

간 사

예, 끝날 때, 지금 말고 다른 안건하고 날 때요.

부위원장

예, 다 끝나고 나서요.

간 사

예.

( 채점표 작성 중. )

부위원장

작성이 다 끝나셨나요?

본부장님?

OOO 위원

저만 안 하고 있나 봐요.

저도 처음 와가지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예.

( 채점표 작성 중. )

간 사

위원장님, 다시 시작 하시죠.

부위원장

시작할까요?

간 사

예.

부위원장

그럼 시작을, 두 분이 어디 가셨네요.

화장실, 들어오시면,

OOO 위원

통화 중이신 것 같고요.

다른 일정 때문에 부득이,

부위원장

가셨어요?

OOO 위원

예.

OOO 위원

시간이 넉넉지가 않아서 5시간까지 끝내는,

부위원장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제2호 심의안건

### 시정명령 기한 내 미착공기업 입주계약 해지 여부

부위원장

다음 심의안건은 시정명령 기한 내 미착공기업 입주계약 해지 여부에 대한 심의입니다.

간사께서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7페이지 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르면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년 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6개월 동안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개월을 줬었습니다.

조건을 그 당시에 달았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완료했으면 일단 의사가 확실하다고 보고 ○개월 유예를 줬습니다.

그래서 표처럼 여러 가지 해왔는데, 오늘 대상기업체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시정명령기간을 6개월 쥐가지고 ○월○○일인데요.

추가로 ○개월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기업은 건축심의 신청을 했다가 스스로 취하를 한 바가 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월○○일 날 건축심의를 신청을 했다가 스스로 취하를 했습니다.

했는데, 착공지연사유를 보시면 ‘-----’  
-----.’ 그런 이유로 취하를 하고 추가로 ○개월 연장해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 밖에 기업체가 필요하면 설명을 들을 수 있고요. 참고로 ○개월 더 준 기업들이 밑에 8페이지 박스를 보시면 ○○하고 ○○ 같은 경우가 추가로 ○개월 더 준다고 했고, 그 기업이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필요 하시면 이야기 듣고, 필요 없으면 안 들어도 관계 없습니다.

## 제2호 심의안건 심의

부위원장

와 있습니까?

간 사

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원래는 2019년 금년도 ○월○○일로 끝나는 건데, 여기 자기들이 낸 그 계획서에 의하니까 ○월○일경에 심의를 완료하고, ○○월○○일 날 건축허가를 완료 하겠다 그 사항이 여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일 날 착공을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거를 이사회 결의서로 해가지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6개월 지났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거냐, 아니면 앞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더 유예기간을 줄 것이냐.’에 대한 오늘 심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00 위원

‘유예기간을 그 전에 것도 부여를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 똑같이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간 사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

000 위원

특별히 안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간 사

이것도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부위원장

여기 이사회결의까지 이거를 다 해서 써서 보냈어요, 이거를요.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간 사

들어볼 수도 있고요.

부위원장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들어보지 않고 앞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전례대로 ○개월을 더 부여할 거냐.

○개월 내에 다 이루어지는 거죠, ○월○○일이요?

간 사

그렇죠.

000 위원

만약에 ○개월 연장을 해줬는데,

부위원장

안 됐다.

000 위원

그다음에 또 안 했다 하면요?

간 사

자동해지입니다.

000 위원

자동해지예요?

간 사

그때는 자동해지.

OOO 위원

한번 들어보시죠.

부위원장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OO 관계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OOO시죠?

OO 관계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누구신지 잠깐만 소개를 하시고요.

OO 관계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OO 경영지원팀을 총괄하고 있는...부장이라고 합니다.

부위원장

...부장님?

OO 관계자

예.

부위원장

앉으시고요.

이게 왜 이렇게 연기가 됐나요?

착공, 이게 사유를 썼는데 OO하교의 무슨 관계 이것 잠깐만,

OO 관계자

<착공지연사유 설명>

OOO 위원

착공유예 기간이, 왜 이유만.

부위원장

그런데 착공이 왜 이유가 늦어졌는지,

○○ 관계자

<착공지연사유 설명>

부위원장

그래서 못 맞췄다는 이야기인가요, 조건을요?

○○ 관계자

<착공지연사유 설명>

부위원장

그러면 ○월○일 날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월○○일 날 건축허가를 득한다.

○○ 관계자

예.

가장 빠르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관계자

무조건 되게 하겠습니다.

무조건 최대한 되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무조건 하겠다?

○○ 관계자

예.

○○○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심의신청은 들어간 거예요?

○○ 관계자

심의신청은 예정일 발표가 나면 일주일 전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준비는 다 되어 있고요.

○월○일이나 ○일 날 접수할 예정입니다.

○○○ 위원

그런데 접수를 한다고 해도, 바로 관청에서 그 서류를 빨리 빨리 이렇게 프로세스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 관계자

저희가 한번,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월에 한번 심의접수를 했다가, 했는데 그 당시에 심의를 넣으면 한 ○월 정도에 결과가 나온다고,

부위원장

왜 취하를 했어요?

○○ 관계자

<취하사유 설명>

부위원장

○월○○일 날까지 착공을 완료한다고 이사회까지 다 보고서 썼습니다.

○○ 관계자

예.

부위원장

만약에 그때까지 유예기간을 뒤서 안 되면 자동해지가 돼요.

○○ 관계자

아닙니다.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무조건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6개월 연장까지만 심의를 하시는 거고, 이번에 되고 나면 다음에는 더 저희가 어떻게 이 안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그때까지 반드시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하실 필요 없고요.

‘○개월 후까지 못 하시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되더라도요.

○○ 관계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부장님이 오셨는데, 대표이사분은 안 오시고 위임을 다 받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 관계자

예,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부장님 개인의 그걸로 하면 안 됩니다.

○○ 관계자

아닙니다.

회사 입장입니다.

○○○ 위원

위원님들이 유예 연장 안 해주면 해지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그러니까 말이에요.

○○○ 위원

어떻게 하는 것 봐서 저희들이,

간 사

설명이 됐으면,

○○○ 위원

나가셔도,

부위원장

나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 관계자

예.

( 관계자 퇴장. )

○○○ 위원

당연히 해줄 줄 알고 오신 것 같아요.

대표이사가 날아와야죠.

서울시관계자B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면 여기 인감은 첨부 안 했는데요.

대표이사 인감까지 다 첨부가 되어 있는 서류였거든요.

다만, 인감에 개인정보가 많아 보니까 빼왔는데요.

인감까지,

부위원장

이렇게 중요한데 대표가 오셔야지, 부장, 상식적으로요.

간 사

사실은 ○개월 연장이 되면 본인들이 ○월○○일로 했는데, ○월○○일  
입니다.

부위원장

○월○○일이요?

간 사

예, ○개월.

OOO 위원

한 달 정도 더 여유가 있다.

## 제2호 심의안건 결론

부위원장

○개월 더 주니까요.

그럼 결론을 내죠.

어떻게, 선례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 됩니다.’ 하면 여기에서 그  
냥 끝나는 건데 너무 가혹하죠, 앞에 선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개월 유예를,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

그럼 ○개월을, ○개월 여기는 ○○일이라고 했지만 ○개월을 하는 것  
으로요.

OOO 위원

정확하게 날짜가 그럼 어떻게,

부위원장

날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요?

간 사

○월○○일에서 ○개월 하니까 ○월○○일.

부위원장

○월○○일.

그럼 2019년 ○월○○일까지 유예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자동으로, 그

때 안 되면 자동으로 해지되는 걸로 그렇게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의결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준공 후 연구시설면적 공실활용방안 개선안에 대한 심의의결입니다.

안건에 대해서,

간 사

원래 기업들 같은 경우,

OOO 위원

심의의결에는 문제가 없어요?

아니 우리,

간 사

과반수,

OOO 위원

재적 과반수 찬성, 과반수 의결이면 돼요?

위원님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요.

가셔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요?

부위원장

출석위원의, 재적위원, 출석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관계자C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OOO 위원

오케이, 그럼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OOO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끝까지,

OOO 위원

되죠?

괜찮으시죠?

부위원장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회에서 사개특위하는 것 똑같습니다.

이거 한 분 빠지면 난리입니다.

간 사

그래서 항상 기업체 선발할 적에는 제일 먼저 합니다.

나중에,

부위원장

그게 안 되면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간 사

나머지는 정책적인 거기 때문이에요.

### 제3호 심의안건

#### 준공 후 연구시설면적 공실활용 방안 개선(안)

부위원장

그러면 세 번째 안건 준공, 후에 연구시설면적 공실활용 개선방안, 방안 개선에 대한 안건입니다.

간사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 제3호 심의안건설명

간 사

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박스를 38차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아마 이미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심의를요.

그때는 공실제공업체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만, 사업계획서는 충족하지 못한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공실활용을 하겠다고 그때 의결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조금 달라진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절약상 개선사항을 표를, 기존안과 개선안을 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입주대상은 기존에는 기업유형을 1순위, 2순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개선안은 기업종류를 밑에 별표를 보시면 창업기업, 산·학·연 센터 조금 확대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는 공실 제공업체가 선정위원회 하나로 한 분, 한 멤

머로 참석하는 건데, 개선안에서는 공실 제공업체가 자체가 선정하도록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겠다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 15페이지 보시면, 기존안은 시설비 부담을 공실 들어오는 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영세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통신시설 같은 기본시설은 공실 제공업체가 해야 된다.

통신선 같은 경우는 제공업체가 선을 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집기류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업체가 하되, 이거는 제공업체하고 협의해서 변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밑에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안은 공실제공기업 선정 및 공실 입주기업 선정을 정책심의에서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은 정책심의 모으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정책심의에서 소위원회 선정해서, 소위에서 선정을 하고 전체 위원회에는 사후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공실 입주기업 선정도 공실 제공기업이 선정을 하되, 또 정책심의에 사후 보고하는 걸로, 그래서 오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당장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승인 요청하는 것도 있습니다.

16페이지는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고요.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공실활용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입주 제공기업 선정이라든지, 그다음 들어올 기업들을 선정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 제3호 심의안건 심의

#### 부위원장

그럼 먼저 공실 제공기업 및 공실 입주기업 선정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먼저 구성하는 게,

간 사

이 안 자체에 동의를 하시고, 이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고,

부위원장

먼저 그거를 하기 전에,

간 사

변경안에 대해서 심의하시고 두 번째는,

부위원장

변경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스타트업하고 창업기업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간 사

창업기업과 창업 관련 법령에,

부위원장

창업하고 스타트업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영어하고 한글입니까?

그게 그거 아닌가요?

여기,

서울시관계자D

비슷한데, 스타트업은 저기 저쪽, 미국 쪽에서 나온 용어이고요.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그쪽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똑같고, 창업기업은 국내기업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데,

부위원장

보통 창업하고 스타트업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분리를 해 놔가지고요.

서울시관계자E

제가,

부위원장

예, 설명해 주세요.

서울시관계자E

스타트업기업을 통상적으로 창업한지 7년 이내 기업으로 통상적으로 보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는 아니고요.

다른 데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보통 7년 이내 기업으로 한정을 많이 합니다.

부위원장

그래요?

OOO 위원

그거는 그런데,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기업종류는 법이 됐건 뭐에 됐건 근거조항이 있는 데서 용어를 가져오는 게 나중에 헛갈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어요.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 같이 스타트업은 관용적으로 그렇게 쓰는 거일 뿐이지,

부위원장

예, 규정에 그게 없다는,

OOO 위원

법적으로 규정에 되어 있는 거는 아닌데,

부위원장

이게 혼선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OOO 위원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이나 산학연센터는 어찌됐건 법정은 다 찾으실 수 있을 거고, 강소기업은 서울시가 한 거랑 다른 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항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는 나중에 뒤에 붙여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뽑을 때,

부위원장

헛갈릴 수가 있습니다.

OOO 위원

거기가 예를 들어서 ‘나는 스타트업.’이라고 우기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간 사

이거는 소위원회 나중에 구성되면 소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

겠습니다.

부위원장

거기에서, 일단 개선하는 건에 대한, 개선안에 대한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OOO 위원

혹시 공실 제공기업에서 이거는 최소기준은 충족하지만, 사업계획서는 충족하지 못한 연구시설을 공실로 내놓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에요?

간 사

애당초에 그렇기는 한데요.

처음에 조사할 때는 서너 개 나왔었는데, 실제로 픽스를 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바뀐 기업체가 좀,

OOO 위원

연구시설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OOO 위원

원래 기업의 연구시설면적이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대기업은 전체 면적의 50%,

OOO 위원

몇% 하는 게 있죠.

OOO 위원

중소기업 40% 이렇게 정해놨는데 기업들이, 오늘 심사하시다 보면 52% 하겠다, 40%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40%를 충족했는데, 자기들이 제시한, 자기들 사업계획서에 대한 51%에는 못 미친,

OOO 위원

50% 해야 되는데 52로 한다든가 그거 2% 못 한,

OOO 위원

못 미친 부분.

그래서 기본연구시설 면적은 충족하고, 자기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의 연구시설면적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부위원장

자기들이 만들어온 것에 걸린 거예요.

거기에 만들어온 것에 계획예요.

OOO 위원

예, 공실을 제공하겠다고 하면,

OOO 위원

그런 얘기에요?

OOO 위원

예, 사업개시하고 연관되어 있어가지고요.

부위원장

그걸 따지고 드니까 자연이 된다 이거죠.

의견 있으세요, OOO 위원님?

OOO 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면 거기에서 정책소위원회가 뭐를 심사하면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40% 이상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래, 해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심사하는 내용이 될까요?

OOO 위원

아니 원래 사업계획서를 충족을 못 하면 사업개시를 못 해주게 되어 있대요.

그런 부분들도 사업개시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심사할 때도 연구시설면적이 조금 더 많은 데를 일단 연구역량을 더 키우게끔 이렇게 해서 높은 점수를 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은 공실 입주기업을 선정하는데 포인트를 둔 겁니까?

어떻게 둔, 역할이요?

OOO 위원

공실 제공기업을 선정할 때,

부위원장

제공기업, 공실 제공기업.

000 위원

입주기업은 제공기업이 선정하니까요.

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공실 제공기업을 소위원회에서,

000 위원

예, 소위원회에서, 왜냐하면 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데 번거로우니까요.

000 위원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오케이를 하면, 그쪽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그렇죠.

오케이를 해가지고 정책심의회에다 넘겨야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요?

간 사

정책심의회는 보고이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000 위원

소위원회에서 선정,

000 위원

소위원회에서, 정책심의회에서 위원님 중에서 하는 거예요, 소위원?

부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논의하는 걸로,

간 사

우리 공장하듯이요.

000 위원

선정,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주시면 공실을 제공하겠다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에 대해서 그래, 소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주시면 그 기업을 대

상으로 오픈시켜서 공개공모를 해서 제공 저기 뭐야, 들어오고 싶은 입주기업을 모집할 거거든요.

000 위원

그러면 참고자료 16쪽에 있는 것이 공실 제공기업이네요?

간 사

현재 하려고 할 의사가 있는,

부위원장

공실을 제공하는 업체네요.

000 위원

예.

000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번 선정이 되면 몇 년 동안 있게 돼요?

그것도 계약을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간 사

3 플러스 2 하려고,

000 위원

최대 5년.

000 위원

3플러스 2?

000 위원

예.

부위원장

그럼 우선 입주, 우선 기존안과 개선안에 대해서 이거를 개선을 한다는 것에 의견이 없으시면 이거를 받으시고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선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이대로 가고, 아니면 문구수정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의견을 먼저 주시고요.

아까 000 위원님 입주요건 기업종류에 대해서,

간 사

소위에서,

부위원장

예, 그거는 소위에서 한번 정리해가지고요.

000 위원

법에 있는 명칭으로,

부위원장

예, 법의 규정과 법에 있는 명칭대로.

000 위원

몇 조에 의한 창업기업의,

부위원장

예.

000 위원

그냥 명확하게 넣어놓으면 나중에 분란이 없을 것 같아서요.

000 위원

그게 맞습니다.

000 위원

시설비 부담 관련해서는 공실 제공기업의 어떠한 그 의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문제없는 거죠?

이게 칸막이라든지 통신선, 기본시설 이거는요?

간 사

왜냐하면 이쪽 기업들이 사업개시를 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도 인센티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000 위원

최소한의 기본인프라는 건물소유주가 하고 다른 뭐야,

간 사

집기류.

000 위원

집기류, 책상, 의자 이런 거는 들어오는 기업이 가지고 올 수도 있고, 협의가 잘되면 거기에서 제공할 수 있고 이렇게 열어놨거든요.

부위원장

그거 협의사항으로 두고요.

000 위원

예.

### 제3호 심의안건 결론

부위원장

현재로 봐가지고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래서 기존안을 개선안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동의하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

OOO님?

OOO 위원

예,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말씀을 안 하시고 계셔서요.

그럼 동의하시는 것으로 해서, 개선안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위원회 구성하는 문제인데, 3명에서 5명, 최소 3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3명으로 소위원회 구성하는데, 구성에 우선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한 분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두 분 이상을 외부전문가를 구성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전문적인 식견이 좀 있어야 되는 분들이 돼야 될 것 같아서요.

간 사

이거는 보시면 소위원회 중에서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OOO 위원

정책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도요?

간 사

예, 위원님 중에서 구성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소위원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간 사

예, 소위가 위원 중에서, 정책심의 이쪽에서,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소위원이 아니라 정책심의에서요.  
간 사  
예, 그렇습니다.  
OOO 위원  
제 생각에는 저희가 소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게 몇 개 있잖아요.  
간 사  
공장등록,  
부위원장  
예, 한 두세 개가 있었죠?  
간 사  
하나 있습니다.  
부위원장  
하나인가요?  
간 사  
예, 그거 하나 있습니다.  
OOO 위원  
거기에 속하지 않는 분들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OOO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좋죠.  
OOO 위원  
그렇잖아요.  
OOO 위원  
아니 그러면 혹시,  
OOO 위원  
그 사람들 똑같이 중복해서 하는 것보다요.  
OOO 위원  
소위원회가 안 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부위원장  
그때 위원님이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000 위원

전 들어가 있죠.

부위원장

들어가 가셨죠?

000 위원

저도 들어가 있어요.

000 위원

그냥 그 위원회를 다시 하면 안 될까요?

부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위원회를 그대로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간 사

그대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000 위원

그렇게 되면 형평성이 없잖아요.

간 사

숫자를 줄일 수도 있고요.

부위원장

그래서 숫자를,

000 위원

전문성을 살리시죠.

부위원장

3명에서 5명이라고 그랬으니까,

000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정해야 되는 거는 아니죠?

간 사

지금 정하면 좋죠.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 할 수 있죠.

000 위원

지난 하셨던 소위원회로 하도록 그렇게 위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그렇게, 여기에서 ○○○ 박사님 들어가시고, 소위원회 들어가시고, ○

○○ 위원님 그때 들어가셨으니까 ○○○ 위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시면 어떤가요?

○○○ 위원

아니 위원회가 자주 있지는 않을 거예요.

부위원장

어떠시겠습니까?

○○○ 위원

자주 있지는 않다고 하니까요.

부위원장

그러면 세 분으로,

○○○ 위원

정말 자주 있지 않으셔야 돼요.

부위원장

○○○ 위원님과 ○○○ 위원님하고 ○○○ 위원님 세 분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결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하니까, 소위원회 구성으로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다른 번에 또 소위원회 구성하면 저희는 좀, 다른 분들을 그쪽 소위원회로 하는 걸로,

부위원장

그때 봐서 제가,

○○○ 위원

미리 이렇게,

○○○ 위원

그것도 기록에 남길 수 없나요?



#### 제4호 심의안건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 ① 사업개시 신고 및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신설
- ② R&D센터(지식산업센터) 심사절차 신설 및 현행절차 명확화

부위원장

그다음에, 다음 네 번째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에 대한 심의입니다.

간사께서.

#### 제4호 심의안건 설명

간 사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개시 신고 및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인데, 이게 실무적으로 하고 있었던 건데, 이것을 관리기본계획에다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17페이지 밑에 박스 보시면 현행 '3. 관리기본계획' 해가지고 쪽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 페이지 18페이지 위쪽을 보시면, 17페이지 하단에 있는 박스를 18페이지 위쪽에 있는, 상단에 있는 개정안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나면 부대시설 보시면, 중간 밑에 보시면 부대시설은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준용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시험연구시설 제외하는 게 빠졌거든요.

사실 저희들은 시험연구시설, 주시설 마찬가지로인데, 그거를 하나 추가한 거고, 그다음에 밑에 거는 뭐냐 하면 건축연면적 계산하는 방식을 앞에 보시면 마치 공장에만 적용되는, 사업화시설만 적용되니까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빼버린 겁니다.

그런 정도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개시 승인 및 공장설립 등의 심사기준, 지금 하고 있는 기준인데 이것을, 이것도 역시 관리기본계획 태우지 않고 실무적으로 계속 해왔는데, 이것을 관리기본계획에다 태우는 거고요.

다만, 19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연구개발 인력 수에 대해서 현재, 오늘 심사를 하셨는데 기업들이 2019년에 어떻게 해야겠다, 2020년 하겠다 하는 그 숫자가 나오잖아요.

연도가 나오는데, 연도가 실제 그 착공해서 사업개시하는 거하고 좀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연도를 특정하지 말고 Y라고 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해 연도를 현재는 입주 심사할 적에는 2019년, 2020년 이렇게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정하지 않고 사업개시하는 그 연도를 Y라고 치자.’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연도를 지정하지 말고,

OOO 위원

분양 받아서, 예.

건물 지으려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서 상 냈던 연구인력이,

간 사

스타트업이,

OOO 위원

연도가 안 맞는.

부위원장

그럴 수 있죠.

간 사

나머지는 실무적으로 된 거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하단 보시면, 지식산업센터를 올해부터 분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식산업센터는 관리기본계획의 규정이나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거를 추가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산업시설이 조금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겁니다.

19페이지 박스 밑에 보시면 심사절차가 위원회 있고 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관리기관을 위임을, 관리기관 없을 때 그때는 시장이 관리권자이면서 관리기관도 되고 겸했었거든요.

작년 5월부터 관리기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있었는데 놓쳐가지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페이지 보시면 관리기관을 집어넣은 거고요.

실제 계약은 사업시행자 SH가 하기 때문에, 일반분양절차는 그렇게 개선한 거고, 밑에 더 중요한 거는 신설한 게 지식산업센터의 토지분양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하는 겁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평가, 심사, 선정.

지금 용지 같은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서 정했었는데,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구조가 조금 달라서 그런 겁니다.

정책심의회에서 심의대상자를 확인하고 추진하는 그런 거고요.

또 결국 계약은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 전에 세척이기 때문에, SH가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토지분양 부분이고요.

밑에 당구장표를 보시면, 토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토지, 지식산업센터 토지를 분양받은 디벨롭이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이 실제로 건립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분양·임대계획에 대해 협의하고,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대로 정책심의회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기본계획이 법규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현재 상태로 관리기본을 좀 보완하자는 게 안건의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 제4호 심의안건 심의

000 위원

이 R&D센터라는 거는 결국은,

간 사

도시형 공장.

000 위원

도시형 공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 사

예.

000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은 산업단지 용지를 분양해서 중소기업하고 대기업들이 들어오도록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기업이랄지 작은

기업들이 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공이 나서서 만들어서 대·중·소 상생, 동반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R&D센터를 SH에서도 공공형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도 R&D센터 목적으로 땅을 분양을 하려다 보니까, 약간 기존에 개별기업한테 분양했던 것하고 절차나 기준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이런 거를 넣고, SH가 적극적으로 분양을 하되, 기본적으로 평가기준이나 이런 거는 잘못하면, 이게 개발자에 의해서 개발이 되다 보면 처음에 취지에 지식산업센터, 작은 기업들이 와서 충분히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건물만 지어서 분양하고 도망가거나 이런 상황이 안 생기게 하려고, 기본적으로 심의위원들이 평가기준 만드시고, 나중에 그런 임대분양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기존에 이 계획이 없어서 이번에 새로 개정안이, 제가 일을 하려다 보니까, 민간 R&D센터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000 위원

결국은 창업보육센터 그런 의미네요?

000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창업보육센터 다 시에서 직접 땅 사서 지어서 들어오게 했는데, 저희는 그냥 땅만 공급하려다 보니까 이런 조항이 새로 필요한 것 같아요.

부위원장

예.

000 위원

보완된 개정안대로 시행될 수 있으면.

#### 제4호 심의안건 결론

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개시 신고 및 공장설립 신고 등의 완료 이 관리기본계

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고, 없으면 통과도  
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공포합니다.

## 제5호 심의안건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부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  
칙 개정안에 대한 의결입니다.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간사님.

## 제5호 심의안건 설명

간 사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정비사유를 보시면 조금 전에 소위원회 구성을 했었는  
데, 소위원회 구성이 운영세칙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운영 구성에 대한 것을 세칙에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미비했던 점들을 조금 추가하자는 겁니다.

22페이지부터 신·구대조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는데요.

첫 번째 1조는 소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직무대행은 앞으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없을 경우에 외부위원이 하  
는 걸로 했습니다.

그다음 23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해촉 조항을 다른 위원회하고 좀 빠진  
거 있어서 추가해서 넣는 겁니다.

그다음에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조항도 조금 더 강화시켰고요.

그다음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제5조는 이런 거고요.

그다음 24페이지 보시면 내부위원들 공무원이 대리할 수 있도록, 오늘  
국장님 오셨는데 이거 통과되면 의결권이 생기는, 지금까지는 성원되기

힘들어서,

부위원장

의결권을 못 갖는 거죠?

간 사

지금부터는,

부위원장

지금은 통과되면 가능,

OOO 위원

다음부터요.

오늘까지는 못 가져요.

간 사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심의안건, 보고안건은 사실상 분리하고 있는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현재는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보고안건 같은 경우 25페이지 개정안 이쪽에 3항을 보시면, 필요시에는 보고자를 달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원회에 대한 위임, 위원회와 소위원회, 자문단하고 소위원회도 넣었기 때문에 소위원회도 새로 써넣었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보시면, 소위에 대한 구성과 운영을 상세하게 넣었습니다.

소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소위원회 위원장을 둘 수도 있고 기능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상정안건은 제출자가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넣었습니다.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주내용이고요.

원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제5호 심의안건 심의

부위원장

운영세칙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죠.

OOO 위원

서면심의의결을 넣어서 좋네요.

간 사

저희도 좋습니다.

OOO 위원

서면심의의결 넣으면 수당은 되나요?

간 사

가급적이면,

부위원장

이것도 정족수가 있나요?

정족수요?

간 사

드려야죠.

당연히 드려야죠.

OOO 위원

서면심의 의결은 수당을 못 드려요?

간 사

드려야죠.

OOO 위원

역할은 하시는 거니까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제5호 심의안건 결론

부위원장

의견이 없으시면,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공포합니다.

그다음에 보고안건.

가셔야 될 분이 OOO 위원님 가셔야 되니까, 보고안건은 그냥 보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제1호 보고안건

### 민간R&D센터(지식산업센터) 공모 계획(안)

간 사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관리기본계획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조금 전에 세칙을 통과했고, 이거는 지식산업센터를 실제 SH에서 하기  
때문에 단장님 오셔가지고 설명을, 공모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 제1호 보고안건 설명

제1호 보고안건설명자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맡고 있는 000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모준비 중인 사항으로 보고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간단하게 지식산업센터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제1호 보고안건 심의

간 사

소위원회 구성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요.

부위원장

소위원회가 많아가지고요.

000 위원

이 소위원회는 그거하고 또 다른 거죠?

간 사

예.

부위원장

사업자 평가에 세부평가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소위원회를  
구성, 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평가기준에 대한 것을  
마련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전문가이  
신 000 위원님 역시,



간 사

이 소위원회는 앞에 거와 조금 다른 게 앞에는, 이거는 검토 소위원회 이거든요.

이거는 심의안건이 아닌 보고안건으로 뺀 사항인데, 이거는 순수하게 나중에 검토평가기준을 다시 정식 위원회에서 결정할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검토하는 소위원회입니다.

부위원장

그렇죠.

간 사

앞에 거와의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부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평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것도 역시 한두 분 정도, 한 분 정도, 000 위원님 그렇게 하시고, 외부에서 해야 되나요?

간 사

외부에서 해도 되고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위원회에서 해도 됩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와야 됩니까?

제1호 보고안건설명자

저희는 소위원회를, 어차피 소위원회 거쳐서 그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안건을 상정할 건데요.

000 위원

위원회에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1호 보고안건설명자

여기 소위원회는 위원 분 중에서 검토, 이렇게 구성해 주시면,

부위원장

하는 게 낫겠다?

제1호 보고안건설명자

저희하고 같이 검토해서 나중에 정책위원회에 올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거는 몇 명이 됩니까?

이것도 역시 세네 명?

간 사

숫자 정해진, 숫자 특정된 거는 아닙니다.

000 위원

예, 세네 분 정도.

000 위원

그럼 오늘 여기 안 계신 분들 중,

000 위원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안 계시면, 그러면 두 분은 그럼,

000 위원

빠지고요.

부위원장

빠지고, 000 위원님하고 000 위원님하고 그래서 세 분을,

000 위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간 사

오늘 좀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이에요.

안 계신 분 말씀드리기 그렇기는 한데, 이분들이 수락하실지를 모르겠는데 000이라든지 유관 이쪽 분들, 000분이잖아요.

부위원장

예.

간 사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외부위원들하고 같이 조인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두 분 들어가시고 추가로 들어오시는 게 어떤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실무진은요?

제1호 보고안건설명자

이 분야 같은 경우 기존에 했던 사례를 좀 생각을 하면요, 특별계획 게 물론 미분양이 됐지만 거기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위원회, 자문위원회

를 구성해서,

부위원장

공공성이,

제1호 보고안건설명자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지만, SH  
공사 시행자가요.

그거를 가지고 다시 소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아니면 저희가 구  
성을 할 때 소위원회 위원님을 구성해 주시면, 참석하셔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부위원장

그럼 정책심의위원회에서,

OOO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두 분 정도를,

제1호 보고안건설명자

추천받아서, 그렇죠.

OOO 위원

거기 평가기준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위원회 구성 시에 참여토록 할  
것.

부위원장

두 분을요?

OOO 위원

예, 그렇게,

부위원장

나머지는 그쪽에서 가시고요?

OOO 위원

예,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간 사

결정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OOO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추천하는 것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

다.

부위원장

그러면 000 위원님하고,

간 사

한 분만 더,

부위원장

예, 한 분.

자진해서 하실,

000 위원

000 위원님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000 위원님이 하시죠.

000 위원

여기 직책 보면요.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간 사

산업단지 쪽에 보면 000,

000 위원

000 위원님.

부위원장

000, 그 분이 낫겠네요.

간 사

본인이 수락할지가 조금,

부위원장

그거는 한번,

간 사

수락 안 되면,

000 위원

어디 계신 거예요?

아니 000이요?

부위원장

예, 000원,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000 위원

000이 사무실이 어디예요?

간 사

000.

000 위원

000.

부위원장

집은 또 00일 수도 있으니까 금요일 오후 이때, 이런 때 하시면,

그러면 000 위원하고,

000 위원

일단 000 위원님을,

부위원장

예, 추천합니다.

000 위원

후순위로 해주시고, 혹시 안 되신다면 제가 위원장님 상의 드려서 그렇게 하는 걸로요.

부위원장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보고사항 해주시죠.

간 사

두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초기에 제가 설명을 했고요.

부위원장

아까 하신 것 같은데요.

간 사

예, 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를,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인데요.

### 제3호 보고안건

시정명령 기한 내 미착공기업 착수유예기간 여부

제4호 보고안건

마곡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입주자격 부여) 계획

제3, 4호 보고안건 설명

간 사

OOO이 착수를 다시 O개월 유예를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부위원장

충족이 됐네요.

간 사

일단 기간이 충족됐기 때문에 유예를 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44페이지 네 번째 입주계약 변경 계획입니다.

이거는 입주기업 중에 OOO라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중기부입니다.

중기부가 같이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을 중기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보시면 중기 벤처부에서 실제로...

협약기간 동안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시적으로 입주자격을 부여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주자격 부여하면서 조건을 걸은 게, 일단은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이 비영리로 운영돼야 된다.' 이게 하나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한 지점으로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을 정부사업이 완료되면 자동적 완료된다는 두 가지 조건으로 한 거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근거를 보시면 시행령에 보시면, 사업단지 자격에 대해서 관리기관이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응용을 해서, OOO에 대해서는 입주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OO 위원

이게 만약에 그럼 중소기업 과제가 끝나고 나면, 그 공간을 다 회수하는 건가요?

간 사

회수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부대시설로 쓰든지,  
OOO 위원  
그거는 그때 가서 다른 용도로 쓰라고요?  
간 사  
자기 회사 내의 공간입니다.  
부위원장  
일종의 작업장 같은 비슷한 것,  
간 사  
그렇죠.  
그런데 자기사업만 쓰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  
같이 공유해가지고,  
간 사  
외부에도 쓰기 때문에,  
부위원장  
같이 공유해서 쓰는,  
간 사  
그게 부대시설개념도 아니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요.  
부위원장  
그다음,  
간 사  
그럼 다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마곡광장은 아까 말씀하셨고요.  
간 사  
예, 다 끝났습니다.  
OOO 위원  
아까 그 결과,  
간 사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타가 있어가지고요.

부위원장

몇 페이지인가요?

간 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타, 25페이지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 ‘보고안건이라 함은’ 해가지고 또 글자가 중복돼가지고, ‘보고안건이라 함은 마곡산업단지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 하나 만들고 ‘하는 안건을 말한다.’ 이렇게 고친 게 맞고요.

부위원장

‘보고하는 안건을’

간 사

두 번째는 18페이지 보시면, ‘사업개시 승인 및 공장설립 등의 심사기준 신설’을 해가지고 밑에 박스에서 보시면, 박스에 보면 그 제조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조시설이 아니고 사업화시설, 마곡에서는 사업화시설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두 가지가 오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 수정을 하시죠.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몇 페이지였죠?

간 사

18페이지.

부위원장

18페이지.

서울시관계자B

조금 더 명확하게는 사업과 제조 구분하는 게 명확한 사실은 맞는데요. 사업화 기준으로 뒷단에 공장설립 완료, 제조기준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이 표현으로 한 건데요.

간 사

그래요?

이거는 실무적으로,

서울시관계자B



이 기준으로 뒤에 또 공장설립 완료신고 기준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조시설을 했고요.

제조시설 없는 데는 공란일 테이고요.

당초 사업하는 공간은 제조시설 구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간 사

그러면 이거는 그냥 둔다 이거죠?

OOO 위원

그냥 가도 된다는 뜻이죠?

서울시관계자B

그냥 뒤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여서, OOO님 말씀대로 명확하게  
나누면 나눌 수도 있기는 한데요.

OOO 위원

아니면 제조시설 괄호 사업화시설 이렇게 쓰면 어때요?

서울시관계자B

‘또는’ 해도 그게 조금 더 명확한 표현이긴 한 것 같습니다.

OOO 위원

뒤쪽도 그래서 승인조건도,

서울시관계자B

제조 20이 들어온 지도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20% 범위 내에서 제조  
가 할 수 있다 보니까요, 그 부분을 표현을 한 건데, 제조가 없는 데는  
또 사업화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OOO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관계자B

‘또는’으로 해서 표현해 주는 게 조금 더 명확한 표현이기는 합니다.

간 사

그럼 괄호해서 처리하도록,

서울시관계자B

그게 너무 또 표현이 너무 많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런 표현으로...표현이 가는 것 같은데요.

간 사

그러면 제조시설에다가 당구장표를 해고 가지고 두 개 다 하도록 그렇게,  
계,

서울시관계자B

예, 그러면 명확한 것 같습니다.

간 사

저희들이 연구시설이 공장이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개념을  
원래는 사업화시설 개념을 따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생겼는데요.

이 당구장,

OOO 위원

연구시설처럼 그 밑에 제조시설 해서 땡땡 해가지고 사업화시설을 포  
함하는 걸로,

간 사

같이,

부위원장

하나 더 써주면 돼요.

OOO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하면 되겠네요.

간 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결과 나왔나요?

서울시관계자A

예.

부위원장

결과 발표해 주시죠.

## 제1호 심의안건 결과

서울시관계자A

이번에 18차 일반분양 신청기업 사업계획평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성평가점수를 합산해서 600점 이상 득점한 기업이 000가 000점이구요.

000가 000점으로 평가점수 충족을 두 개 기업이 충족되었지만, 000가 000점 000보다 높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로 000가 선정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00점이 더 많네요.

서울시관계자A

예.

부위원장

000가 1차에서 정량평가에서 너무 많이 잘 받은 거예요.

000 위원

거기에서 00점 차이 났으니까요.

부위원장

거기에서 많이 차이가 나니까, 1차에서요.

000 위원

아깝다.

000 날아갔네요.

부위원장

2차 정성평가에서는 다른 것보다 많이 떨어졌는데요.

000 위원

땅 좀 더 없으세요?

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으로 영향이 오는 거예요.

000 위원

오늘은 온 팀들이 꽤 좋았는데요.

오늘은 온 팀들이 다 꽤 좋았는데요.

부위원장

다 좋았어요.

000 위원

마지막만 조금,  
000 위원  
간 사  
다음에 또 저희들이 용지를 만들어가지고 또 이분들도 홍보해야죠.

부위원장  
재수해서 떨어진 회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까운,

000 위원  
아니 연구인력도 늘어나도 엄청 좋던데요.  
아깝다.

부위원장  
아깝네요.

000 위원  
그런데 할 수 없죠.

부위원장  
000는 이번에 정성평가에서는 000점으로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었는데, 000가 000점 제일 잘 받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000가 선정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000 위원  
앞으로는 정량평가점수를 오픈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부위원장  
저게 영향을 줍니다.

000 위원  
영향 주죠.

000 위원  
영향을 주죠.

부위원장  
저게 영향을 굉장히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OOO 위원

오픈을 앞으로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부위원장

그거를 위원들한테 주지 말고요.

선입감이 온단 말이죠.

OOO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OO점 차이 나고 여기 OO점 차이 나는,

부위원장

저게 뒤집어지잖아요, 1차하고 2차하고요.

비슷하면 이해가 가는데, 완전히 뒤집어지니까 저게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간 사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예, 끝났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42차인가, 41차인가,

관계자

41차.

부위원장

41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 회 17시40분.(2019년 제40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